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년 2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중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단소지도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정 은 숙

중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단소지도 방안 연구

Research on Effective Dan-So Educ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2010 년 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정 은 숙

중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단소지도 방안 연구

지도교수 서영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 년 10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정 은 숙

정은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한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지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영화 인

2009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4
제 2 장 단소 악기론	5
제 3 장 효과적인 6차시단소 지도방안	34
제 4 장 결론 및 제언	46
참 고 문 헌	48

표 목 차

<표 1> 1차시 수업 지도안.....	34
<표 2> 2차시 수업 지도안.....	36
<표 3> 3차시 수업 지도안.....	38
<표 4> 4차시 수업 지도안.....	40
<표 5> 5차시 수업 지도안.....	42
<표 6> 6차시 수업 지도안.....	44

그 립 목 차

[그림 1] ‘단소의 구조’	5
[그림 2] ‘서양음계와 단소 율명 비교’	6
[그림 3] ‘단소 지공 잡는 법’	8
[그림 4] ‘각 율명 지공 잡는 법’	10
[그림 5] ‘단소 滿 지공 잡는 법’	11
[그림 6] ‘단소 부는 입술 모양’	13
[그림 7] ‘취구의 위치’	14
[그림 8] ‘바람의 방향’	15
[그림 9] ‘바람의 방향’	15
[그림 10] ‘단소 소리내는 순서’	19
[그림 11] ‘汰와 湫 지공 잡는 법’	20
[그림 12] ‘정간보 이야기’	21
[그림 13] ‘정간보 각 부호 설명’	23
[그림 14] ‘정간보 박자’	23
[그림 15] ‘장식음’	40

[그림 16] ‘부 호’	28
[그림 17] ‘장식음과 부호 비교’	28
[그림 18] ‘장식음’	29
[그림 19] ‘부 호’	30

악 보 목 차

[악보 1] ‘몽금포 타령’	24
[악보 2] ‘도라지’	25
[악보 3] ‘뱃노래’	26
[악보 4] ‘영산회상 중 타령(1단계 연습곡)’	27
[악보 5] ‘영산회상 중 타령(2단계 연습곡)’	31
[악보 6] ‘새야 새야’.....	32
[악보 7] ‘아리랑’	33

ABSTRACT

Research on Effective Dan-So Educ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Jung, Eun- suk

Advisor : Prof. Seo, Young-hwa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Dan-So is one of most generalized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which is easy to carry and play. Despite of this, Dan-So education is not well developed for middle school curriculum.

This situation is caused by the absence of organized education system of Dan-So as well as school teachers' unconcern on Korean classical music.

The difficulties of playing and the absence of well-organized education should be the main reasons why Dan-So education has been neglected so far. At this research, I'm going to present an "effective Dan-So education method for middle school students" to improve this situation. It starts from the very elementary educational basis and proceeds step by step.

Systematic educational solutions are presented as ; musical scale instructions at the elementary 1st step, sound-making instructions at the

2nd & 3rd step, how-to-play at the 4th step, how-to-read 'Jung-Gan-Bo' at the 5th step, and more sophisticated play by adding sings and marks at

the 6th step.

These 6 steps are designed for 2 times lessons per week. I wish this research could activate better Dan-So education through easier & more interesting instructions.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세기는 다문화주의 경향과 더불어 세계문화의 경쟁시대이다. 교육에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은 서로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자국적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또한 전인적 성장의 기반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렇듯 교육과정 또한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 하고 있다.¹⁾

문화의 여러 갈래 중 음악은 문화의 기본적인 가치에 따른 삶의 양식을 가르치는 수단이며 사회적 기준에 순응하여 문화를 계속적으로 안정되게 전달하는데 기여한다.²⁾

우리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음악교과는 전통음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단소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악기이다. 단소는 중학교 음악교육의 현장에서 전통음악 교육을 위한 기악 학습의 도구로 널리 사용되는 악기이다. 서양악기인 리코더나 하모니카는 오랜 기간 우리나라 음악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어 학생들에게 연주법이 친숙해져 있는 악기인데 반해 단소는 연주자세, 소리내기, 호흡법, 운지법, 정간보 읽기 능력 등 학습경험 부족에서 생기는 문제점들과 음악교사의 단소 교육능력은 단소 연주기능향상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존의 단소 지도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중학교의 짧은 음악수업 시수 내에 단소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단소 지도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한 편이다.³⁾

1) 교육부. 『초·중등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pp.13~14

2) 이순례. 「유아를 위한 국악교육 연구」, 『동남대학교 논문집 제 35호』, (서울: 동남대학교, 2001), p.1

3) 이병철. '중학교 음악교육에서의 효율적 단소지도 방안' 강릉대학교 2003, p.1

이러한 문제점들을 집약하여 본 연구자가 교육현장에서 지금까지 실천해오던 단소 교육법을 종합한 ‘중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단소 지도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체계적인 6차시 수업지도안으로 이루어진 단소지도법을 제시한다.

둘째, 현직 음악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단소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단소교육을 통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위와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통해 음악교사는 6차시 수업지도안을 토대로 체계적인 단소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은 효과적인 단소 지도 교육을 받아 우리 전통 음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한다.

악기 연주는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의 균형 있는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음악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악 체험의 내용과 과정을 마련하여 체계 있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음악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기악 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중학생들은 신체적인 조건의 면에서나 지적인면에서 악기를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반드시 악기 연주를 배워 연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단소나 장구, 사물놀이를 넘어서 소금, 가야금 등의 다양한 악기들을 다루어 보게 하고, 특별히 좋아진 악기를 한 가지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연습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악기 연주의 지도 과정에서는 정확한 흐름과 가락 바른 자세와 운지법 등이 중요하며, 그러한 면들은 악보를 충실하게 읽는 가운데 여러 번 되풀이 연습하게 하고, 바른 태도와 운지법으로 연주하는 것을 시범해 보임으로써 교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하나의 악곡을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면, 악곡의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과 가락 및 화음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고, 악곡의 구조와 각 프레이즈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서 ‘소리내기’가 아니라 ‘음악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경청하는 식의 태도로서는 결코 ‘참으로 음악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음악을 할 때만이 음악을 가장 바르고 빨리 아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 비로소 교사는 기악 표현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창의적인 음악 표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음악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음악 학습에서 기악 연주는 연주 기능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라, 악곡의 표현성을 체험함으로써 음악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음악 표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데 관심을 집중하여야 하는 것이다.⁴⁾

이렇듯 학생들에게 우리의 전통 악기 ‘단소’를 지도를 하려면 먼저 교사들의 능력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데 ‘단소라는 악기는 어렵고 가르치기 어렵다’라는 가치관 때문인지 교육현장에서는 단소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체계적이고 가르치기 쉬운 단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그 목적과 필요성을 지닌다.

4) 김두봉.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체재곡 분석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pp.5-6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단소는 국악기 중 소지하기 쉽고 비교적 연주법도 간단해 가장 보편화 된 악기 중 하나이다. 그러함에도 중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쉽게 다루어지지 않는데, 그러한 이유로는 단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며 일선 교사들의 국악 교육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왜 국악교육 중 하나인 단소가 소외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단소는 우선 다른 악기에 비해 소리 내는 방법이 어렵고 지도 방법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하고자 ‘중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단소지도 방안 연구’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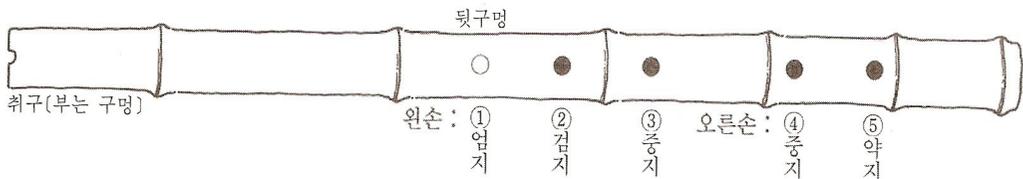
이 연구는 단소의 가장 기초적인 교육에서부터 단계별로 진행된다. 즉 1차시에는 기초과정으로 단소의 유래와 율명(律名)과 악기 잡는 법이며, 2차시와 3차시는 단소 소리 내는 3가지 방법, 4차시에는 아랫단(低音)과 높은 단(高音) 바람의 세기의 차이를 알고 소리 내는 방법이고, 5차시는 정간보(井間譜) 보는 방법과 곡 연주하기, 6차시는 부호나 기호를 넣어 더욱 맛깔스럽게 연주하는 방법으로 총 6차시 수업지도안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지금까지 각종 단소 교본과 교과서, 논문을 종합해보고 국악교육을 일선에서 해 오던 내용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하였다. 본 연구자가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은 1주일에 2회 음악수업을 한다는 가정 하에 6차시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 일선 교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제 2 장 단소 악기론

1. 단소의 유래

단소의 효시에 대해서는 예부터 궁중에서 쓰이지 않고 민간에서만 떠돌던 악기 인지라 악학궤범에도 기록이 없어 그 역사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저 아득한 옛날부터 풍류를 좋아하던 우리 민족이 모여 단소 비슷한 악기를 만들어 즐겼으리라만 짐작할 뿐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비로써 실내악의 발달에 아울러 정악에 채택되어 그 위치가 뚜렷해졌다. 또한 단소의 종류로는 소리가 넓게 퍼지는 듯한篋竹(황죽)과 소리가 가늘고 높은음이 아름다운 烏竹(오죽)이 있다. 요즘은 주로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질로 개량된 악기도 있다.⁵⁾ 단소란 짧은 吹(취)악기로서 국악기 중에서 소지하기 편하고 연주하기 쉬워서 채택이 되었다고 말 하고 있지만 결코 단소는 쉬운 악기는 아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쉬운 악기는 어디에도 없다. 모두 다 땀과 노력이 있어야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소는 연주하면 할수록 그 음색의 깊이와 청아함을 멀리 뺏어 내는 참 멋진 누구나 한 번 느껴보면 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악기라 말할 수 있다.

단소의 각 위치의 명칭을 살펴보면 [그림1]과 같이 단소는 U자 모양의 취구(吹口)가 있고 뒤편에 있는 1지공(指孔)과 앞에 2.3.4.5 지공으로 모두 5지공이 있다.



[그림1] 단소의 구조 6)

5) 박경옥, “교과서와 함께하는 단소교본,” 『효일 문화사』 2006. p.8

6) ibid. p.18

2. 단소의 율명(律名)

단소의 율명(律名)은 서양 음계와 비교해보자면 계이름이과 같은 뜻으로 서양의 계이름은 'Do-Re-Mi-Fa-Sol-La-Si-DO'의 순서가 있듯이 단소의 율명(律名)으로는 '汰(태)-潢(황)-無(무)-林(임)-仲(중)' 5음 음계를 사용하며 때론 '漙(남)과 '浹(협)이 포함되어 7음 음계를 쓰기도 한다.

[그림2]에서 보듯이 오선보는 음의 높낮이를 쉽게 알 수 있는 반면 우리의 율명(律名)에서는 음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약속이 하나 있다.

The diagram shows a danso instrument with fingerings for the left and right hands. The left hand has five fingers (thumb to pinky) and the right hand has five fingers (thumb to pinky). The instrument is labeled '취구(吹口:부는곳)' at the top. Below the instrument is a chart comparing Western and Korean scales. The chart has two main sections: '아랫단' (Lower Scale) and '높은단' (Higher Scale). The Western scale is represented by a staff with notes and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The Korean scale is represented by a grid of circles (filled for '막음' - closed, empty for '열음' - open) corresponding to the notes of the Western scale. The Korean notes are: 夾(협), 仲(중), 林(임), 南(남), 無(무), 潢(황), 汰(태), 浹(협), 漙(중), 淋(임), 漙(남), 無(무), 潢(황), 汰(태), 浹(협), 漙(중). A legend indicates that a filled circle represents '막음' (closed) and an empty circle represents '열음' (open). A note at the bottom right states '* Eb =潢'.

[그림 2] 서양음계와 단소 율명 비교 7)

7) 조성래. "기초편 단소교본," 『한소리 국악원』, 2008.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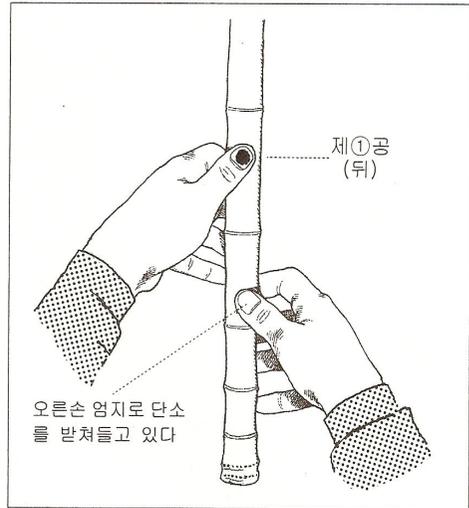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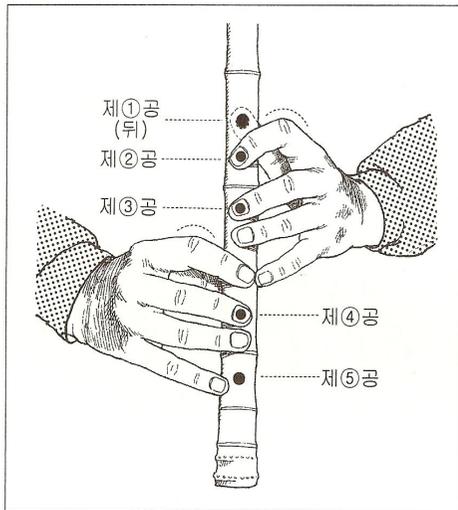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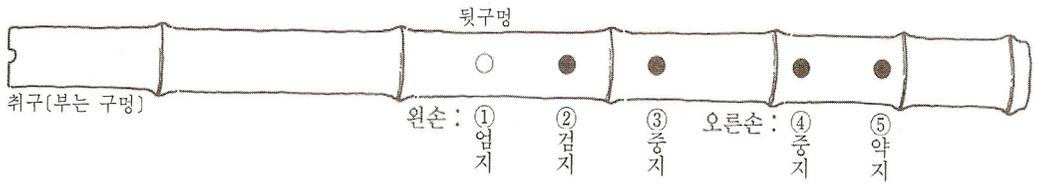
위의 [그림2]를 보듯이 아랫단(低吹)과 높은 단(高吹)을 비교해 보면

아랫단(低吹)-- 汰(태), 潢(황), 無(무), 林(임), 仲(중)

높은 단(高吹)-- 湫(태), 潢(황), 無(무), 淋(임), 沖(중)

아랫단(低吹)에서 彳(삼수변)이 붙은 건 ‘汰(태)’와 ‘潢(황)’뿐이고 나머지는 彳(삼수변)이 붙어있지 않다. 그러나 높은 단(高吹)에서는 전체가 다 彳(삼수변)이 붙어 있지만 ‘湫(태)’와 ‘潢(황)’은 彳(삼수변)이 2개가 붙고 나머지는 彳(삼수변)이 하나씩만 붙어있다. 그러므로 위의 율명(律名)을 보면 알다시피 아랫단(低吹)과 높은 단(高吹)의 차이는 彳(삼수변)으로 구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3. 지공(指孔) 잡는 법



[그림 3] 단소 지공 잡는 법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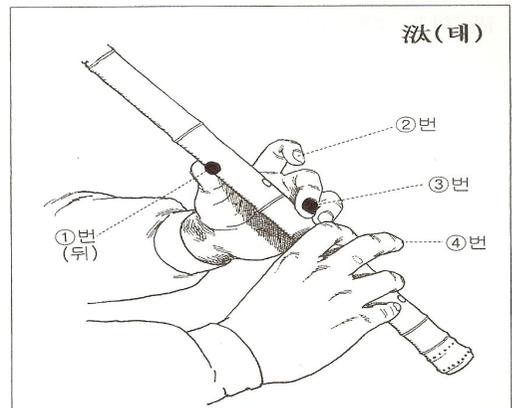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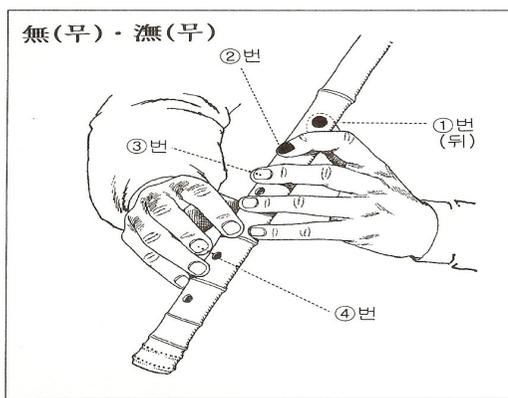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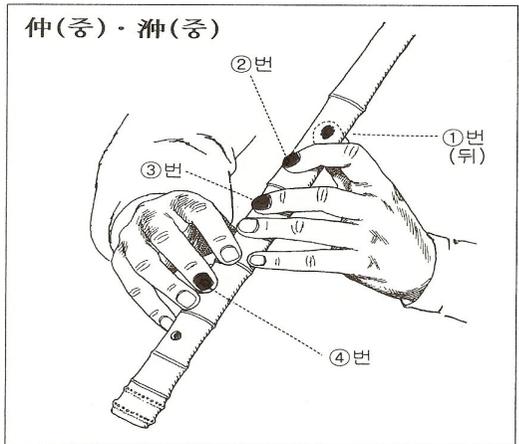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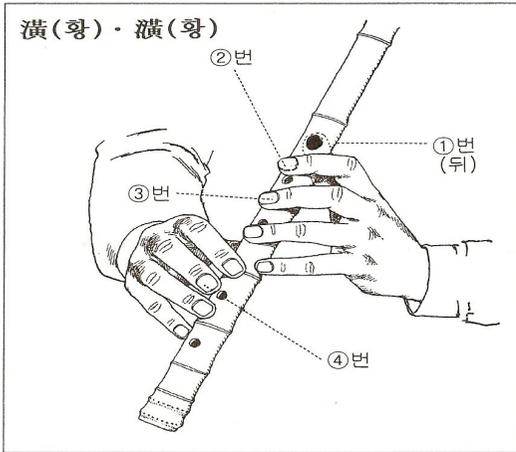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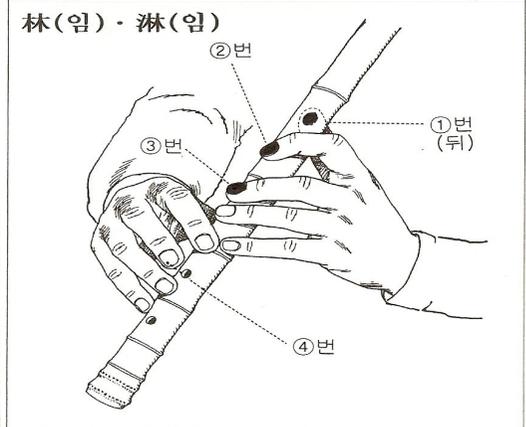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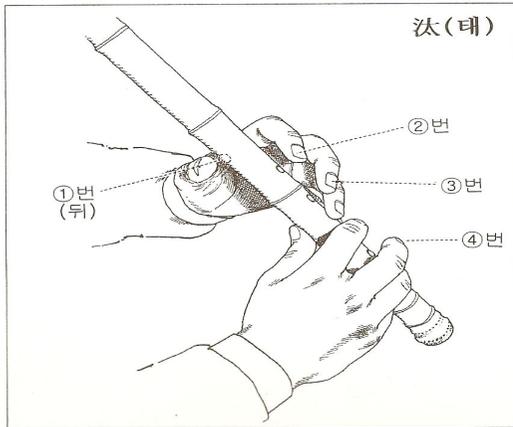
8) 조성래. “기초편 단소교본,” 『한소리 국악원』, 2008. p.7

[그림3]처럼 지공(指孔)을 막는 손가락에 색을 칠해주면 어떤 손가락으로 지공(指孔)을 잡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더 재미있게 율명(律名)과 함께 외우는 방법은 각 지공을 막는 손가락의 손톱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방법인데 율명(律名)과 비슷한 색깔의 스티커를 각 지공(指孔)을 막는 손가락의 손톱에 붙이는 방법이다.

‘潢(황)’의 지공(指孔)을 막는 손톱 끝에는 노란색 스티커를 ‘濼(무)’의 지공(指孔)을 막는 손톱 끝에는 흰색 스티커를 ‘林(임)’의 지공(指孔)을 막는 손톱 끝에는 초록색 스티커를 ‘仲(중)’의 지공(指孔)을 막는 손톱 끝에는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 준다. 이렇게 가르치면 손톱에 붙인 스티커색깔과 율명(律名)이 일치하기 때문에 더욱 쉽게 율명(律名)과 지공(指孔)의 자리를 외울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공(指孔)을 막지 않은 나머지 손가락들인데 나머지 손가락들은 검정색 스티커를 붙여 악기에서 어떠한 음정을 연주하더라도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손가락 이라는 걸 인식 시켜주어야 한다. 아무렇게나 접어두거나 악기 뒤에 두는 게 아닌 각자 손가락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왼손의 약지와 소지는 단소의 왼쪽 옆구리를 지탱해주고 오른손 엄지는 단소의 아랫부분 받치고 검지는 윗부분을 잡음으로 악기의 위. 아래를 집게형식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오른손 약지와 소지는 단소의 오른쪽 옆구리를 잡음으로 인해 단소의 사방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피아노에서도 ‘Do’의 자리. ‘Re’의 각자 손가락 자리가 있듯이 단소에서도 각자 자기의 율명(律名)에 맞는 지공(指孔)자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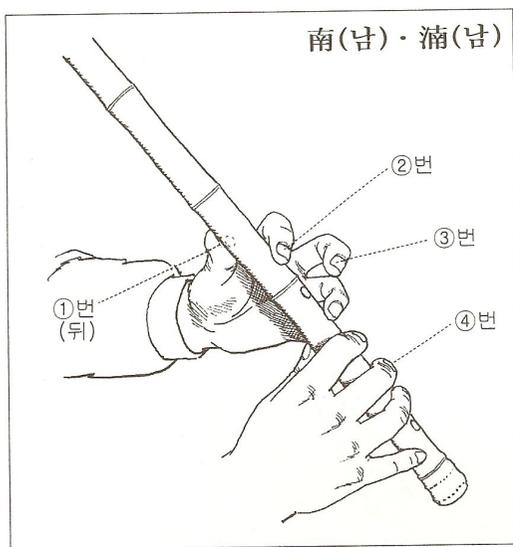
[그림4]를 보며 우선 각 율명(律名)마다의 손가락 지공(指孔)을 막는 방법을 설명하고 아랫단(低吹)과 높은 단(高吹)에 대한 설명은 4차시 수업지도안에서 제시 하겠다. 우선 각 율명(律名)에 맞는 지공(指孔)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그림 4] 각 율명(律名) 지공 잡는 법⁹⁾

9) 조성래, “기초편 단소교본,” 『한소리 국악원』, 2008. pp.17-18

‘汰’(아랫단 ‘태’): 5개의 모든 지공(指孔) 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취구(吹口)에 바람을 넣었을 때 소리가 난다. ‘湫’(높은 단 ‘태’): 1공과 3공을 막고 바람을 세계 불어 주었을 때 소리가 나게 된다. ‘潢’(아랫단 ‘황’) - ‘潢’(높은 단 ‘황’): 뒤의 1지공(指孔)만 막고 분다. ‘無’(아랫단 ‘무’) - ‘無’(높은 단 ‘무’): 1. 2지공(指孔) 을 막고 분다. ‘林’(아랫단 ‘임’) - ‘淋’(높은 단 ‘임’): 1.2.3 지공(指孔) 을 막고 분다. ‘仲’(아랫단 ‘중’) - ‘泐’(높은 단 ‘중’): 1.2.3.4 지공(指孔) 을 막고 분다. 이렇게 단소는 5음 음계를 사용하지만 아래와 같이 ‘瀟’과 ‘浹’을 포함해 7음 음계를 사용하기도 한다. ‘浹’(Fa): 1.2.3.4.5 지공(指孔) 까지 모두 다 막았을 때 소리가 나게 되고 ‘瀟’(Si)은 [그림5]와 같다.



‘瀟’(Si):

1.2.4지공을 막거나
1.2 지공을 막고 3지공을 반만
막았을 때 소리가 난다.

(‘瀟’이라는 소리는 ‘濼’(Do)와 ‘淋’(La)
사이 음 이여서 ‘淋’지공(指孔)을 반만
막아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림 5] 단소 ‘瀟’ 지공 잡는 법¹⁰⁾

10) 조성래. “기초편 단소교본,” 『한소리 국악원』, 2008. p.18

4. 귀에 가져다 대고 음정 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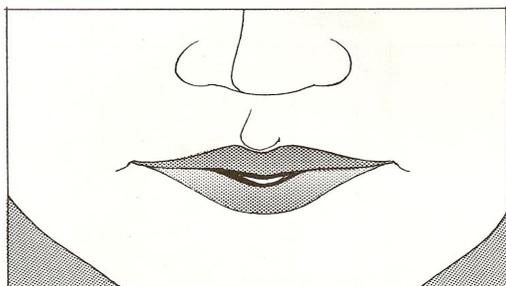
이렇게 각 지공(指孔)의 율명(律名)과 자리를 외웠으면 단소의 취구(吹口) 부분을 오른쪽 귀에 가져다 대고 조용한 상태에서 지공(指孔)을 ‘汰’ ~ ‘泚’까지 하나하나씩 천천히 막아 내려가면 소라껍질을 귀에다 대고 들으면 공명 소리가 나듯이 재미있게도 귀에서 각 단소의 음정이 들리게 된다. 이런 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흥미를 느끼며 신기해하며 단소의 음정을 익힐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율명(律名)이 외워지면 모듬별로 모여 한명씩 돌아가면서 율명(律名)을 말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지공을 맞게 막아 서바이벌 식으로 게임을 하고 각 모듬별에서 게임에서 이긴 학생들끼리 모여 이번에는 선생님이 율명(律名)을 내어주어 승자를 가리는 게임을 하면 아이들이 더욱 더 재미있고 빠르게 율명(律名)을 외우게 될 수 있다.

5. 단소 소리 내는 방법

단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 내는 법이다. ‘단소는 소리만 낼 줄 알면 절반은 다 했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리 내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다음에 설명하는 3가지만 주의하면 충분히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가. 입술 모양

단소를 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후~ 불면되는 것이 아니다. 단소를 부는 입술 모양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단소 부는 입술 모양은 입술을 아랫입술과 윗입술을 닫은 상태에서 입술의 양쪽 끝을 양 옆으로 잡아당겨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smail~ 을 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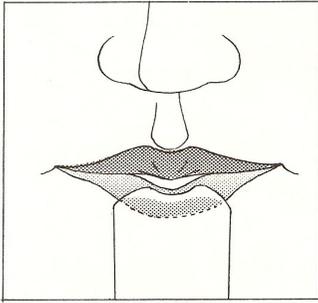
[그림 6] 단소 입술 모양¹¹⁾

바람은 취구(吹口)에 들어가기 전 내 입술을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아랫입술에 주름이 쳐 있으면 바람이 예쁘게 들어가지 못한다.

[그림6]처럼 입술의 양 끝을 양 옆으로 잡아당기며 입술이 한 일자(一)가 되도록 만든 뒤 입술의 한 가운데를 취구(吹口) 정도의 크기를 내어 바람을 부는데 ‘프~’ 혹은 ‘후~’하고 내 숨이 되는 만큼 길게 그리고, 바람의 세기를 일정하게 내쉬어 보도록 한다. 이 연습을 할 때에는 거울을 보고 연습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거울을 보면 내 입술이 지금 한 일자(一)를 하고 있는지 양쪽 끝은 힘을 주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거울을 보며 고개를 들어 보면 내 입술 중앙에서 바람이 나가는 모양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조그만 개인 거울을 가지고 다니며 거울을 보며 입술 연습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11) 안수영. “초보자용 단소교본,” 『현대음악 출판사』, 1992. p.17

나. 취구(吹口)의 위치



입술 연습이 끝났으면 이제 그 입술 위에 단소를 놓아야 하는데 단소의 취구(吹口) 부분을 아랫입술 두께의 절반부분. 그리고 양 입술 길이의 중앙부분에 두어야 한다.

[그림 7] 취구의 위치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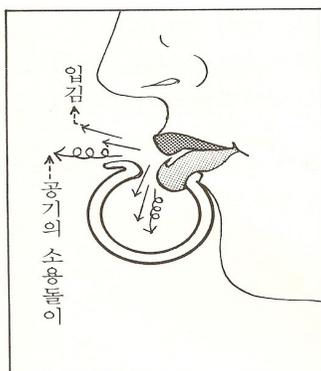
[그림7]처럼 아랫입술 중앙에 취구(吹口)를 대어 주어야 하는데 취구(吹口)의 위치가 아랫입술 중앙이 아니라 너무 위쪽에 두거나 아래쪽으로 취구(吹口)를 두게 되면 바람이 모두 악기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너무 입술 아래쪽에 붙게 되면 바람이 바깥으로만 나가게 된다. 바람은 절반은 안으로 절반은 바깥으로 나가야 예쁘고 정확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랫입술 중앙에 두는 것도 거울을 보며 연습해 보도록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건 입술이 한 일자(一) 모양을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구를 가져다 대야 한다는 것이다. 종종 입술을 한 일자(一) 한 뒤에 취구를 갖다 대면 입술이 다시 오므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거울을 보며 연습을 하면 쉽게 고칠 수 있다.

12) 안수영. “초보자용 단소교본,” 『현대음악 출판사』, 1992. p.17

다. 바람의 방향



[그림 8] 바람의 방향¹³⁾



[그림 9] 바람의 방향¹⁴⁾

단소는 리코더처럼 모든 바람이 악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림8],[그림9]처럼 바람의 절반은 악기 안으로 들어가고 절반은 바깥으로 나가며 공명(空鳴)을 울리며 소리가 나게 되는 원리이다. 입술모양과 단소 취구(吹口)의 위치는 거울에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지만 바람의 방향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리내기 연습할 때 입술모양과 취구의 위치도 좋은데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면 바람의 방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바람이 나가는 방향과 취구(吹口)의 방향이 맞아야 한다. 바람은 입술 가운데로 나가고 있지만 취구(吹口)는 입술에 뺨뚫어지게 놔두면 소리가 나질 않는 것이다.

둘째, 바람의 방향이다. 절반은 악기 안으로 들어가고 절반은 바깥으로 나가야 하지만 너무 바람이 악기 안으로만 들어가거나 너무 바깥으로만 나가도 소리가 나질 않는다. 위의 그림과 같이 악기는 45도로 두고 고개는 15도 정도 숙인 뒤에 바람을 넣을 때도 당연히 45도로 들어가 줘야 한다. 바람을 넣기 전 좋은 연습방법은 [그림9]처럼 단소의 지공(指孔)을 막지 말고 오른손으로만 단소의 윗부분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바람을 넣었을 때 바람의 절반이 내 손등을 스쳐야 바람의 절반이 바깥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바람이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아예

13) 서한범, 주대창 외 2인.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도서출판 태성』, 2002. p.26

14) 안수영. “초보자용 단소교본” 『현대음악 출판사』, 1992. pp.18-19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바람의 방향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이므로 바람의 방향을 아래, 위로 조절을 하며 소리 내어 보도록 한다.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바람소리가 안 나고 정확한 소리가 날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입술모양도 좋고 취구(吹口)의 위치도 좋고 바람의 방향과 취구(吹口)의 위치가 잘 맞았을 때인 것이다. 그 방향과 그 세기를 잘 기억하고 다시 그 소리가 나도록 연습하는 게 가장중요 하다. 그럼 단소 소리 내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다.

첫째, 단소를 ‘伸’까지 지공(指孔)을 다 막고 잡는다.

(처음부터 ‘汰’ 지공(指孔)을 막고 취구(吹口)에 가져다 대려면 악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취구(吹口)에 바짝 가져다 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伸’으로 잡은 뒤 취구(吹口)에 가져다 댄 뒤 지공을 아래서부터 하나하나 떼어 올라가 ‘汰’로 잡는 게 좋다.)

둘째, 입술을 한 일자(一)로 만든 상태에서 단소의 취구(吹口)를 아랫입술 중앙에 가져다 댈다.

셋째, 입술에 취구를 바짝 댄 상태에서 단소의 지공(指孔)을 4공. 3공. 2공. 1공을 순서대로 떼어서 ‘汰’지공(指孔)을 잡는다.

넷째, 바람을 ‘프~’ 혹은 ‘후~’하고 단소의 취구(吹口)로 넣는다. ‘汰’ 소리를 내 숨이 다 되는데 까지 길게 불어본다.

다섯째, 소리가 잘 나지 않는 경우는 거울을 보며 입술 모양과 취구 위치를 확인해 보고 그래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바람의 방향을 위, 아래로 불어 넣어본다.

여섯째, 정확한 소리가 났을 때에는 그 방향과 위치를 잘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불어 보아 반복 연습을 하여 본다. 이렇게 3가지 소리 내는 방법을 설명 했는데 이 방법 모두 거울을 보며 연습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입술모양도 좋고 단소의 위치도 좋은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의심할 건 단 한가지 이다. 바로 바람의 방향이다. 바람의 방향을 위로도 불러보고 살짝 아래로도 불러봐서 바람이 취구(吹口)안으로 절반, 바깥으로 절반 들어갔을 때만이 정확하고 예쁜 소리가 날 수 있다.

라. 친구들끼리 서로 잘못된 점 봐주기

이렇게 단소 소리 내는 방법을 충분히 설명 해 주고 학생들과 전체 소리 내어 연습해 본다. 연습 할 시간을 5분 정도 주고 아직도 소리가 잘 나지 않는 학생을 자리에 일어서게 해서 그 자리에서 불러보라 하여본다. 이때 반 친구들은 그 친구의 부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설명 한 것 중에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발표를 하여 본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친구의 단소의 부는 모습을 보며 무엇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 걸 짚어주도록 한다. 이렇게 서로 짚어주면서 ‘아~ 내가 저런 것들이 잘못 되어서 나도 소리가 나질 않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때 선생님은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통합하여 잘못된 점을 다시 제대로 잡아 주면서 무엇 때문에 소리가 잘 나지 않는지를 확실히 짚어주고 그 부분을 고쳐 그 자리에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만이 아이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며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뒤 다시 아이들끼리 연습하는 시간을 주며 짹끼리도 봐주기도 하면서 연습할 시간을 주어 보도록 한다.

6. 개인별 지도 교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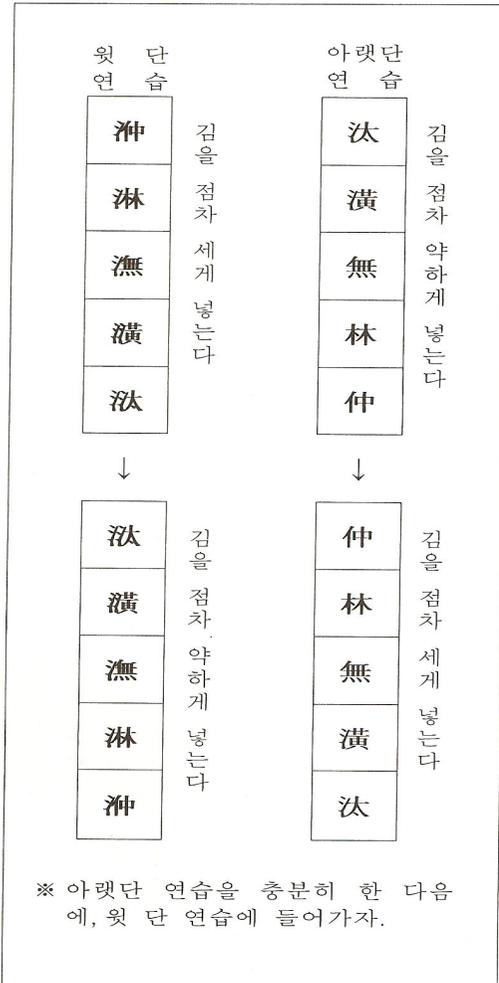
전시까지 단소의 유래, 율명(律名), 지공(指孔) 잡는 법,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았다.

3차시에는 개인별 지도가 꼭 필요하다. 어떠한 악기더라도 배울 때에는 단체학습이 어렵다. 한 명 한 명 개인교습이 꼭 필요한 것이다. 앞에서 열심히 설명을 다했지만 그 중에 손가락 지공(指孔)을 잘 못 잡고 있는 학생도 있을 테고 단소의 율명(律名)도 아직 잘 모르는 학생도 있을 테고 단소 ‘汰’소리도 아직 못 내는 학생도 많을 것이다. 입술 모양이 잘못 되었거나 취구(吹口)의 위치가 잘못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바람의 방향을 잘 못 넣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개인지도를 통해서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 중에서 잘못된 점이 가장 많은 건 바람의 방향을 틀린 학생들이 많다. 그 이유는 입술모양이나 취구(吹口)의 위치는 거울을 보면 내가 잘못 되었는지를 알 수 있지만 바람의 방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바람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때 교사는 개인별로 봐 주며 입술모양과 취구(吹口)의 위치는 좋은데 소리가 안 나는 학생들은 바람의 방향을 잡아주면 되는 것이다.

1차시면 충분히 반 아이들을 돌아가며 한 명 한 명 봐줄 수 있는 시간이다. 1대 1 교습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자칫하면 소리도 못 내고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을 옳게 잡아줄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이렇게 교사가 한 명 한 명 봐주고 있을 때 나머지 학생들은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개인 연습을 하고 있고 개인 지도를 받은 학생은 선생님께서 잘못 되었다는 부분을 다시 생각하며 거울을 보며 연습 하도록 한다. 개인 지도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한 번 더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짚어주고 넘어가도록 한다.

7. 아랫단(低吹), 높은 단(高吹) 소리 내는 방법

※ 연습 하는 순서



아랫단(低吹) 에서는 ‘汰’소리가 가장 내기 쉬우므로

汰(태)-潢(황)-無(무)-林(임)-仲(중) 순서대로 불러보도록 한다.

이때 바람의 세기는 점점 약하게 넣어 불러줘야 한다.

반대로 아래 ‘仲’에서부터 올라올 땐 바람의 세기를 점점 세게 넣어야지 정확한 아랫단 소리를 낼 수 있다.

높은 단(高吹) 에서는 ‘沖’소리가 가장 내기 쉬우므로

沖(중)-淋(임)-漙(무)-潢(황)-汰(태) 순서대로 불러주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는 점점 세게 불러주고 반대로 가장 높은 음 ‘汰’에서부터 내려 막을수록 바람의 세기는 점점 약하게 넣어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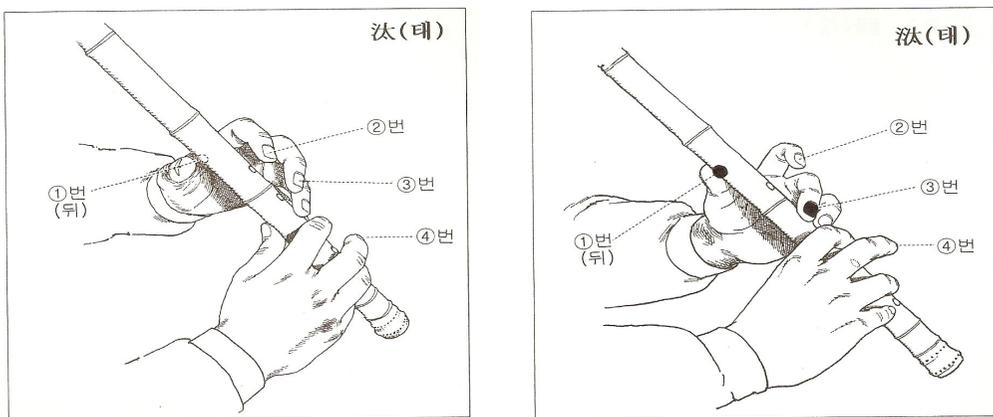
[그림 10] 단소 소리 내는 순서15)

15) 조성래. “기초편 단소교본” 『한소리 국악원』, 2008. p.22

단소에는 약 2옥타브 정도의 소리가 난다. 옥타브 차이를 나게 하는 건 지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바람의 세기이다. ‘중’이라는 지공을 막고 바람의 세기를 약하게 불면 아랫단(低吹) ‘仲’소리가 나게 되고 바람의 세기를 세게 불면 높은 단(高吹) ‘泚’이 소리 나게 되는 것이다.

단소의 음정은 2옥타브로 아랫단(低吹)과 높은 단(高吹)으로 나뉘는데 아랫단(低吹)에서는 지공(指孔)을 점점 막아 내려 갈수록, 즉 음정이 점점 낮아질수록 바람의 세기를 점점 약하게 넣어야 하고 높은 단(高吹)에서는 지공(指孔)을 점점 떼어 올라갈수록, 즉 음정이 올라갈수록 바람의 세기는 점점 세게 넣어줘야지 정확한 음이 나오는 것이다. 아랫단(低吹)과 높은 단(高吹)의 바람의 세기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랫단(低吹) ‘仲’과 높은 단(高吹) ‘泚’을 지공(指孔)을 그대로 막고 바람의 세기만을 이용해 아랫단(低吹)과 높은 단(高吹) 소리가 난다는 걸 시범연주를 직접 보여주는 게 학생들에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것이다. 바람의 세기의 차이를 알려면 많은 연습을 통해 그 느낌을 익혀야 할 것이다.

仲-泚, 林-淋, 無-漚, 潢-瀦 까지는 지공은 같고 바람의 세기만 다르게 넣으면 옥타브 차이가 나게 되는데 단 하나. 汰-湫 는 아랫단(低吹)과 높은 단(高吹)의 손가락 지공 막는 법이 다르다. 아랫단(低吹) ‘汰’는 1.2.3.4 지공을 모두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조심히 바람을 불지만 아래의 그림표처럼 높은 단(高吹) ‘湫’는 1공, 3공을 막고 바람을 날카롭게 세게 불어 넣어주어야 한다.



[그림 11] ‘汰’와 ‘湫’ 지공 잡는 법¹⁶⁾

16) 조성래. “기초편 단소교본” 『한소리 국악원』, 2008. p.18

8. 정간보(井間譜) 보는 방법

우리나라 고유 악보의 종류로는 모두 8가지의 악보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율자보(律字譜), 공척보(工尺譜), 약자보(略字譜), 육보(肉譜), 합자보(合字譜), 오음약보(五音略譜), 연음표(連音標), 정간보(井間譜)로 8종류의 기보법(記譜法)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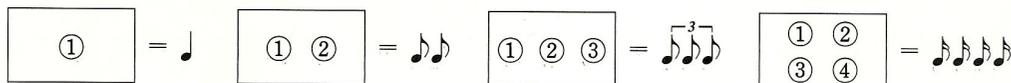
이러한 악보들은 모두 각 악기들의 소리와 연주방법 또는, 성악의 표현 방법을 각기 특징 있게 표기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옛날 고악보(古樂譜)에 나오는 정간보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원고지 모양의 악보인 것이다.

정간보(井間譜)란 우물 정(井)자 모양 안에 여러 개의 율명(律名)을 적어 넣어 음의 고저(高低)와 박자를 표시한 악보이다. 한 칸을 한 박으로 쳐서, 음의 시가(時價)를 나타내는 정간보(井間譜)는 세종대왕이 창안한 우리나라 최초의 유량악보(有量樂譜)이다.¹⁷⁾



● △ : 침표 V : 습표

● 1정간의 리듬



[그림 12] 정간보(井間譜) 이야기¹⁸⁾

17) 조성래. “기초편 단소교본” 『한소리 국악원』, 2008. p.13

18) 백병동 외 4인,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천재교육』, 2007. p.17

한 간(間)은 한 정간(井間)이라 하여 1박을 표시하고 율명(律名)을 정간 속 어느 위치에 기보 되었느냐에 따라서 리듬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정간보(井間譜)의 장점은 한배(길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점이 있지만 음의 높낮이를 보는데 불편함이 단점이라 하겠다. 하지만 오선보는 음의 길이는 보기 어렵지만 음의 높낮이를 보기엔 쉽게 만들어 진 것이 정간보와 오선보의 장. 단점이 아닌가 싶다. 이렇듯 정간보(井間譜)의 완성은 우리나라 음악계에 있어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전의 기보법(記譜法)들은 음의 길이와 높이가 분명치 않았으며 보편적이고 획일적이지 않아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매우 불편하였다. 정간보(井間譜)는 오선보와는 달리 위에서 아래로 읽는 세로 악보이고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왼쪽으로 읽어야 한다. 세로로 이루어진 한 단위의 줄을 1행이나 1각, 또는 1장단이라 부른다. 다음 표를 보면 정간보(井間譜)의 이해가 쉬울 것이다.

5차시 수업지도안에서는 ‘몽금포 타령’을 연주해 보도록 하였다. 어떠한 곡을 연주하기 전에는 그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곡을 연주하기가 쉽다. 민요를 단소로 연주하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연습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첫째, 장단에 맞춰 ‘몽금포 타령’노래를 불러본다.

둘째, 율명(律名)으로 노래 불러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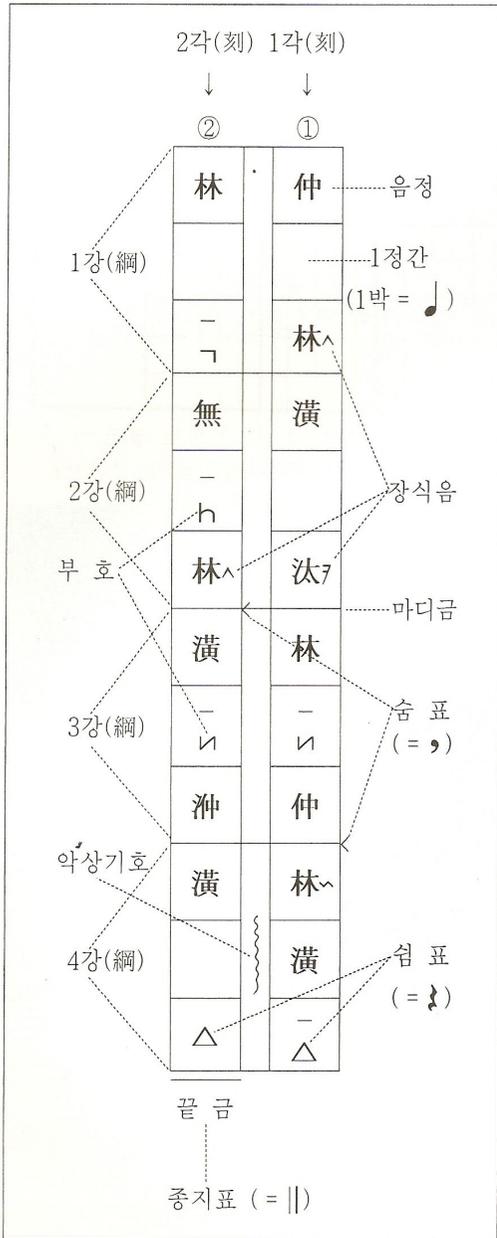
셋째, 장단에 맞춰 율명(律名)을 읽으며 단소의 지공(指孔)을 짚어본다.

넷째, 천천히 한 음씩 정확히 소리 내어 연습하여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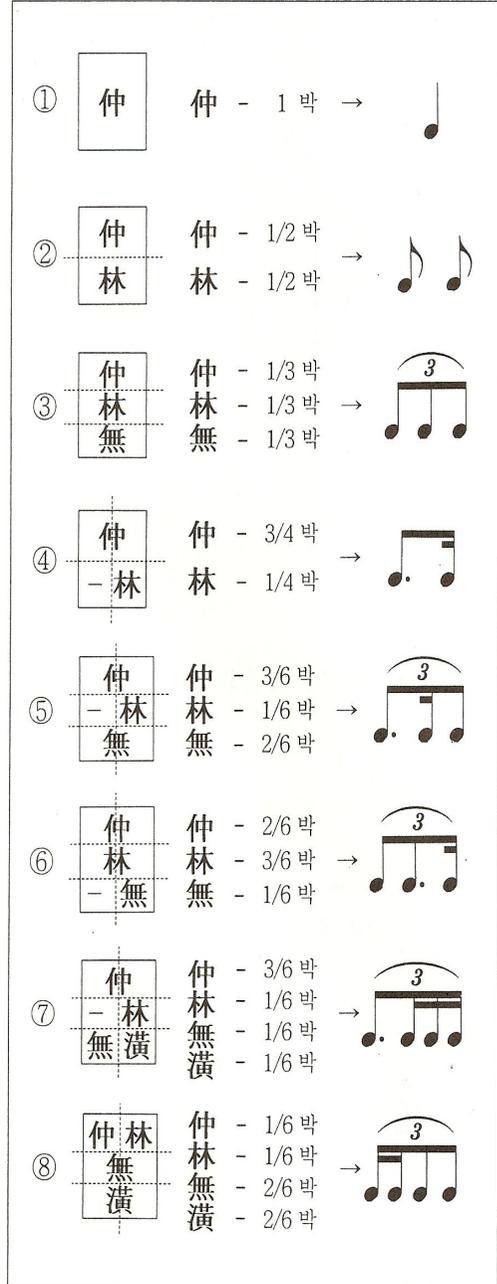
다섯째,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점점 제 속도로 장단에 맞춰 연주하여 본다.

‘몽금포 타령’외에도 다른 연습곡들을 같이 기재한다.

※ 정 간 보(井間譜)



[그림 13] 정간보 각 부호 설명¹⁹⁾



[그림 14] 정간보 박자²⁰⁾

19) 조성래. “기초편 단소교본” 『한소리 국악원』, 2008. p13

20) ibid. p20

몽금포 타령

—가창·기악—



곳거리 장단 황해도 민요

장 산 꽃 마 루-에 --- 북 소리 나 더-니 ---
 갈 길 은 멀 구-요 --- 행 선 은 더 디-니 ---

금 일 도-상 - 봉 에 - - - - - 님 만 나 보 겠 네 - -
 늦 바 람-불 - 라 고 - - - - - 서 낭 님 조 른 다 - -

에 헤 요-에 헤 요-에 헤 요 - - - - - 님 만 나 보 겠 네 - -

無	無	無	無	汰	汰	⊙	몽금포 타령
林	汰	林	汰	沖	沖		
林	無林	林	無林	沖	沖		
汰	無	汰	無	沖	沖	○	
	汰		汰				
無	無林	無	汰	無淋	無淋		
林	汰	林	汰	沖	沖	○	
	沖						
無		無		淋沖	淋沖		
林	沖	林	沖	無	汰	○	
	汰沖		汰沖	汰			
△	汰	△	汰	無林			

[악보 1] 몽금포 타령²¹⁾

21) 윤경미, 문진, “중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 『아침나라』, 2007. p.16

도 라 지 타 령

潢 — 汰	저 기 저 산 밑 에	汰	에	林	에	潢 — 汰	대 바	汰	한	潢 — 汰	심 — 심	汰	도	세 마 치 장 단
汰 — 汰 — 汰	저 산 밑 에	汰	야	林 — 無	에 — — — 	汰	구	汰	두	汰	심	汰	라	
汰 — 汰	밑 에	汰	라	仲	요	汰	니	汰			~ ~ ~ ~ ~	汰	지	
潢 — 汰	도	汰	난	林	에	潢 — 汰	철	汰	뿌	潢 — 汰	산 — 천	汰	도	
潢 — 無	라	— 潢		林 — 無	에 — — 	潢 — 無	— 철 — — 	— 潢	리	潢 — 無	— 천 — 에	— 潢	라	
林 仲 —	가 —	無	다	仲	요	林 仲 —	철 —	無	만	林 仲 —	에 —	無	지	
林	한	泅 — 泅	지 화	無	에	林	다	泅	캐	林	백	泅	백	
無	들	泅	자	無	에	無	넘		~ ~ ~ ~ ~	無	도		~ ~ ~ ~ ~	
— 林	한	淋 — 泅		— 潢		— 林	는	淋 — 泅	어	— 林	라	淋 — 泅	도	
仲	들	汰	중	無	요	仲	다	汰	도	仲	지	汰	라	
		— 潢			~ ~ ~ ~ ~			— 潢				— 潢		
△		無	다	潢		△		無		△		無	지	

[악보 2] 도라지 타령²²⁾

22) 조성래. “기초편 단소교본” 『한소리 국악원』, 2008. p.72

뱃 노 래

淋	치	淋	들	淋	잠	湫	부	淋	뱃	淋	어	淋	어	긋거리 장단
淋	량	淋	려	淋	을	湫	뒋	淋	놀	淋	야	淋	기	
一	도	淋		一				一	이	淋		淋	야	
汰	하	漚	오	汰	깨	湫	치	汰	가	漚	디	漚	디	
)		淋)		湫	는)		淋		淋	야	
<		漚	는	<				<		漚	야	一		
漚	구	漚	는	漚	우			漚	잔	漚	야	一		
淋	나	潢	과	淋	니	潢	과	淋	다	潢	어	汰	차	
		潢	도			潢	도			潢	기			
		一				一				一				
		湫	소			湫	소			湫	여			
		一				一				一				
△		湫	리	△		湫	리	△		湫	차	△		

[악보 3] 뱃노래²³⁾

23) 조성래. “기초편 단소교본” 『한소리 국악원』, 2008. p.80

— ‘영산회상’ 중에서 —

汰	淋 無	潢	潢	汰	汰	沖	淋	⊙	서 한 범 채 보
					— 潢				
		淋	汰	潢	淋	淋	沖		
汰	無	沖	沖	無	無	潢	淋	·	
— 潢	— 淋	— 無	— 淋	— 淋	— 淋	— 無	— 沖		
無	沖	淋	潢	潢	潢	淋	汰		
林	潢	潢	潢	潢	潢	沖	潢	⊙	1 단 계 단 소 연 주 곡
			— 無	— 無	— 無		— 無		
潢	沖	淋	淋	淋	淋	淋	淋	·	
沖	淋	沖	潢	潢	潢	潢	沖		
					— 汰	— 無	—		
△	沖	潢	潢	潢	潢	淋	潢	·	

[악보 4] 영산회상 중 ‘타령’1장²⁴⁾

위의 [악보 4]는 영산회상 중 ‘타령’ 1장의 곡으로 1단계 단소 연주곡이다. 어떠한 부호나 장식음이 있지 않은 기본 가락만이 있는 기본곡이다.

24) 서한범. 주대창 외 2인, “중학교 2학년 음악교과서” 『도서출판 태성』, 2002. p.50

9. 장식음 및 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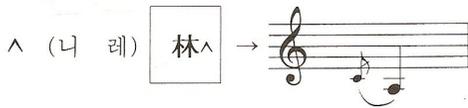
오랫동안 구전심수(口傳心授)와 개인 사사(私事)를 통하여 전해 내려왔던 어려운 가락들을 오늘날에 와서 장식음과 부호로 정리되어 정간악보에 널리 쓰이고 있다.

단소는 악기 자체가 작아 손놀림이 매우 편리해 단소만이 표현할 수 있는 복잡하고 아름다운 가락들이 많은데 이 가락들을 한 정간 안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장식음과 부호로서 대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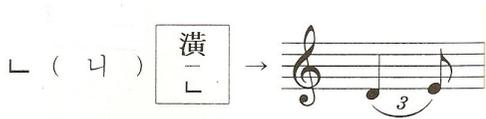
장식음과 부호의 다른 점은 장식음이란 어느 한 음정 옆에 붙어서 그 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앞꾸밈음 역할을 하고, (표-1) 부호는 장식음과는 달리 음정 옆에 붙지 않고, 음정 옆이나 아래에 붙어 제 시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호라고 한다.²⁵⁾

이렇게 단소를 정간보(井間譜)를 보며 연주할 실력이 되면 부호와 장식음을 곁들여 단소연주를 더욱 맛깔스럽게 연주할 수 있게 된다.

[그림15], [그림16]을 보면서 장식음과 부호를 비교하여 이해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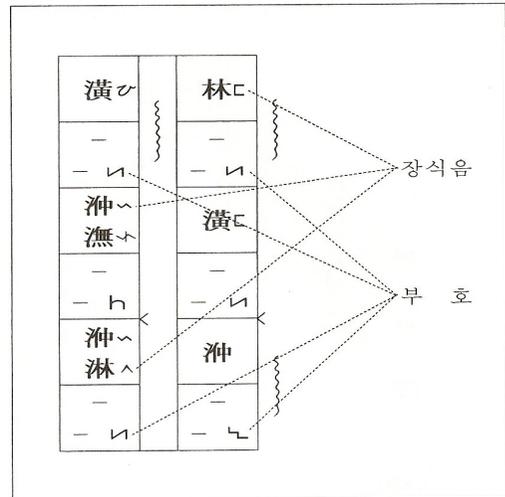


<그림 15> 장식음²⁶⁾



[그림 16] 부 호²⁷⁾

※ 장식음과 부호 비교



[그림 17] 장식음과 부호 비교²⁸⁾

25) 조성래. “기초편 단소교본” 『한소리 국악원』, 2008. p.21

26) ibid. p.27

27) ibid. p.27

28) ibid. p.21

장 식 음

장식음	구 음	플 이	표 기	플 이
ㄸ	니 레	하나 위음을 짧게, 본음을 길게 표현.	潢ㄸ	汰潢
ㅅ	니 라	두음 위음 짧게, 본음을 길게 표현.	潢ㅅ	冲潢
ㄱ	노 네	하나 아래음 '짧게, 본음 길게 표현.	潢ㄱ	無潢
ㅋ	너 네	두음 아래음 짧게, 본음 길게 표현.	潢ㅋ	林潢
ㄴ	노 니 로	본음, 하나위음을 짧게, 본음 길게 표현.	潢ㄴ	潢汰潢
ㄹ	네 로 네	본음, 하나아래음 짧게, 본음 길게 표현.	潢ㄹ	潢無潢
ㄷ	나 니 르	하나 아래음, 하나 위음 짧게, 본음 길게 표현.	潢ㄷ	潢汰潢

[그림 18] 장식음²⁹⁾

위의 [그림 18]은 정간보에 쓰이는 장식음으로 어떠한 음 옆에 붙어 그 음을 장식해 주는 역할을 하여 준다.

또한 정간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여러 율명을 적어 넣을 수 없어 위의 그림과 같이 약자로 표기 한 것이다. 일종의 악보와의 약속인 것이다.

29) 박경옥, “교과서와 함께하는 단소교본” 『효일 문화사』 2006. p.14

부 호

부 호	구 음	풀 이	표 기	풀 이
ㄴ	니	하나 위음을 시가 만큼 내는 표	潢 - ㄴ	潢 - 汰
ㄷ	리	두음 위음을 시가 만큼 내는 표	潢 - ㄷ	潢 - 沖
ㄱ	로	하나 아래음을 시가만큼 내는 표	潢 - ㄱ	潢 - 無
ㅋ	로	두음 아래음을 시가만큼 내는 표	潢 - ㅋ	潢 - 林
ㄴ	니 나	하나 위음, 본음을 시가만큼 내는 표	潢 - ㄴ	潢 - 汰潢
ㄷ	느 나	하나 아래음 본음을 같은 시가로 내는 표	潢 - ㄷ	潢 - 無潢

[그림 19] 부 호³⁰⁾

위의 [그림 19]는 장식음으로 부호와의 다른점은 장식음은 어떠한 음 앞에서 빠르게 가락을 넣어 그 음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부호는 정간보의 칸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 모든 음들을 다 그려 넣기가 어려워 부호로 약식화한 것이다.

30) 박경욱. “교과서와 함께하는 단소교본” 『효일 문화사』 2006. p.16

영산회상 中 ‘타령’ 1장

汰	淋 無	潢	潢 7	汰	汰	泚	淋	⊙	서한범 채보
					— 潢				
		淋 ∨	汰	潢	淋 ∨	淋 ^	泚		2 단계 단소 연주곡
汰 ^	無 ^	泚	泚	無	無	潢	淋 ^	·	
— 潢	— 淋	— 無	— 淋	— 淋	— 淋	— 無	— 泚		
無	泚	淋	潢	潢	潢	淋	汰		
林 ∨	潢	潢	潢 ^	潢 ^	潢 ^	泚	潢	⊙	
			— 無	— 無	— 無		— 無		
潢	泚	淋 ∨	淋	淋	淋	淋 ^	淋	·	
泚	淋	泚	潢	潢	潢	潢	泚	○	
					— 汰	— 無	—		
△	泚	潢 ∨	潢 ^	潢 ^	潢	淋	潢 ∨	·	

● 단소의 시김새 ●

- ^ : 본음보다 한 음 윗음을 먼저 급히 냄
- 7 : 본음보다 한 음 아래 음을 먼저 급히 냄
- ∨ : 본음을 내기 전에 본음과 한 음 위의 두 음을 먼저 급히 냄
- ∷ : 그 음을 잔물결처럼 떨어 주는 표
- △ : 쉽표
- > : 숨표

[악보5] 영산회상 中 ‘타령’ 1장 (부호와 장식음)³¹⁾

위의 [악보5]는 영산회상 中 ‘타령’ 1장 악보이다. [악보4]에서 제시하였던 ‘타령’에 장식음과 부호를 넣어 가락을 만들어 연주할 수 있는 곡으로 1단계 높여 제시하였다.

31) 서한범. 주대창 외 2인, “중학교 2학년 음악교과서,” 『도서출판 태성』, 2002. p.51

1 단계

을	얏	淋	청	녹	淋	떨	과	淋	녹	새	泚
고	지	泚	포	두	潢	어	랑	泚	두	야	潢
간	마	潢	장	밭	淋	지	새	潢	꽃	새	淋
다	라	潢	수	에	淋	면	야	潢	이	야	泚
		△			△			△			△

- 1) '새야 새야' 노래 불러보기
- 2) 율명을 노래로 불러보기
- 3) 율명을 읽으며 단소 지공 띄어보기

2 단계

을	얏	淋)	청	녹	淋)	떨	과	淋)	녹	새	泚
고	지	泚)	포	두	潢)	어	랑	泚)	두	야	潢)
간	마	潢)	장	밭	淋)	지	새	潢)	꽃	새	淋)
다	라	潢)	수	에	淋)	면	야	潢)	이	야	泚)
		△			△			△			△

- 1) 한음 한음 정확하게 천천히 불러보기
- 2) 속이는 음과 별리는 음정 주의하며 연주하기

3 단계

을	얏	淋^)	청	녹	淋^)	떨	과	淋^)	녹	새	泚
고	지	泚^)	포	두	潢^)	어	랑	泚^)	두	야	潢^)
간	마	潢^)	장	밭	淋^)	지	새	潢^)	꽃	새	淋^)
다	라	潢^)	수	에	淋^)	면	야	潢^)	이	야	泚^)
		△			△			△			△

- 1) ^ 가락에 주의하며 연주.
본음. 한음위. 본음을 빠르게 연주.
- 2) ^ 가락에 주의하며 연주.
한음 위 음을 빠르게 연주.

[악보 6] '새야 새야' 정간보 3단계³²⁾

아 리 랑 2

아 리 랑 1

1

泚	십	潢	나	泚	아	潢	아	세 마 치 장 단	無	십	泚	나	無	아	仲	아	세 마 치 장 단	
泚	리			泚	리	泚	리		無	리				無	리	仲		리
泚	도	潢	를	泚	랑	潢	랑		泚	도	泚	를		無	랑	仲		랑
泚	못	潢	버	泚	고	泚	아		泚	못	泚	버		泚	고	無		아
泚	가	泚	리	泚	개	泚	리		泚	가	泚	리		泚	개	泚		리
泚	서	泚	고	泚	로	泚	랑		泚	서	潢	고		泚	로	無		랑
泚	발	泚	가	泚	넘	泚	아		泚	발	泚	가		泚	넘	泚		아
泚	병	泚	시	泚	어	泚	리		泚	병	潢	시		泚	어	潢		리
泚	난	泚	는	泚	간	泚	리		泚	난	無	님		泚	간	無		리
泚	다	潢	은	泚	다	潢	요		泚	다	泚	은		泚	다	泚		요
		泚				泚					泚					泚		
		泚				泚					泚					泚		
		泚				泚					泚					泚		

※ 민요 2번 「아리랑」은 1번을 4도 위로 옮긴 곡이다.
위의 민요를 아래의 세마치 장단에 맞춰서 연습하여 보자.

[악보 7] 아리랑33)

아리랑은 우리의 전통 민요곡으로 ‘아리랑1’번은 처음으로 연주하는 곡이고 ‘아리랑2’는 4도위로 연주되는 고음을 연습할 수 있는 곡이다. 저음과 고음으로 으뜸음이 다른 2곡을 단소로 연주하여 보도록 한다.

32) 서한범, 주대창 외 2인. “중학교 2학년 음악교과서,” 『도서출판 태성』, 2002. p.27

33) 조성래. “기초편 단소교본,” 『한소리 국악원』, 2008. p.66

제 3 장 효과적인 6차시 단소 지도방안

<표 1> 1차시 수업지도안

과 목		음 악		
수업 대상		중학생		
단 원		단 소 (유래. 율명. 지공 잡는 법)		
차 시		1 / 6		
본시 차시	학습 목표	1. 단소의 유래에 대해 알 수 있다. 2. 단소의 율명과 계이름을 비교 할 수 있다. 3. 단소의 율명에 맞게 지공을 잡을 수 있다.		
지도 내용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비고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7분)	*시범 연주	*시범 연주	*선생님의 연주 감상	교과서
	*단소의 유래	*단소의 유래 설명.	*단소의 유래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개 (33분)	*단소 율명	*단소의 율명에 대해 설명 (아랫단. 높은 단) 汰(태). 潢(황). 無(무). 林(임). 仲(중)	*단소의 율명 익히기. 汰(태). 潢(황). 無(무). 林(임). 仲(중)	단 소 멀 티 미디어
	*지공 잡는 방법	*단소의 각 지공 잡는 법 설명	*단소 지공 잡는 법 설명 들은 후 각 지공 하나 하나 잡아보기.	

	<p>*스티커</p> <p>*귀로 듣기</p>	<p>*각 지공의 손가락에 스티커 붙여본 뒤 지공 잡아보기.</p> <p>*단소의 취구를 귀에 가져다 대고 각 울명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지도.</p>	<p>*지공 막는 손가락에 각 스티커를 붙여 울명에 맞게 지공을 잡아보도록 한다.</p> <p>*단소의 취구를 귀에 가져다 대고 각 지공을 하나씩 막아 내려가면서 소리 들어본다.</p>	
<p>종결 (5분)</p>	<p>*울명 게임</p>	<p>*모듬별 울명 게임 설명 후 모듬별 게임 지도.</p>	<p>*각 모듬별로 울명을 말 하여 울명에 맞게 지공 막기 게임.</p>	

1차시부터 6차시까지 단소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표 1>에서는 우선 1차시 수업지도안으로 단소의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해 제시하였다. 단소의 유래와 울명과 서양의 계이름을 비교할 수 있으며 단소의 지공을 잡아보는 연습을 지도하도록 한다.

<표 2> 2차시 수업지도안

과 목		음 악		
수업 대상		중학생		
단 원		단 소 (소리 내는 방법)		
차 시		2 / 6		
본시 차시	학습 목표	1.단소의 울명을 제대로 알고 지공을 짚을 수 있다. 2.단소 소리 내는 방법을 이해 할 수 있다. 2.단소를 소리 내어 볼 수 있다.		
지도 내용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비고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7분)	*전시 확인	*단소의 울명 질문. *각 울명에 맞는 지공을 잡아보도록 지도.	*선생님의 물음에 울명 을 순서대로 말해본다. *각 울명에 맞는 지공을 잡아본다.	교과서 단 소 멀 티 미 디 어
전개 (33분)	*소리 내는 방법	*단소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	*소리 내는 방법 경칭	
	*입술모양	*입술 모양에 대해 설명	*입술 모양 따라해 본다.	
	*취구위치	*취구의 위치에 대해 설명	*입술에 취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단소를 가져다 대어본다.	
	*바람방향	*바람이 방향에 대해 설명	*바람의 방향의 설명을 듣고 바람을 불어본다.	

	*거울 연습 *서로 봐주기	*거울보고 연습 방법 *짝꿍끼리 서로 봐주기.	*거울을 보고 3가지 방 법을 잘 생각하며 연습 *짝꿍끼리 서로 봐주며 잘못된 부분 말해주기.
종결 (5분)	*다시 한번 더 정리.	*3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 해 주며 순서대로 연습지도.	*3가지 방법을 잘 생각 하며 순서대로 천천히 연습하여 본다.

위의 <표 2>에서는 2차시 수업지도안으로 단소의 각 울명에 맞게 지공을 막아 보도록 한다. 색깔이 있는 스티커를 사용해 각 지공을 막는 연습을 하여보고 단소 소리 내는 방법을 이해하고 연습하여 보도록 지도한다.

<표 3> 3차시 수업지도안

과 목		음 악		
수업 대상		중학생		
단 원		단 소 (개인별 지도)		
차 시		3 / 6		
본시 차시	학습 목표	1. 단소의 울명을 제대로 알고 지공을 잡을 수 있다. 2. 자신의 단소에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다. 3. 개인지도를 통하여 소리 낼 수 있다.		
지도 내용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비고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7분)	*전시 확인	*소리 내는 3가지 방법을 다시 설명 해 주며 소리를 내어 보도록 지도.	*전시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단소 지공을 막으며 소리 내어 보기.	교과서
전개 (33분)	*개인별 지도 *지공 잡는 법	*단체 지도로 부족한 부분을 개인 지도로 채워본다. 한 명 한 명 개인 지도를 해 주도록 한다. *지공 잘못 잡고 있는 부분 잡아주기.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연습하여 보고 자신의 차례가 지나면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을 잘 생각하며 거울을 보며 연습하여 본다. *지공은 잘 잡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입술 모양	*입술 모양이 잘못된 부분 잡아주기.	*입술 모양은 잘 펼쳐져있는지 거울 보며 확인.
	*취구 위치	*취구의 위치가 잘못된 부분 잡아주기.	*취구의 위치가 빠뜨려져 있지 않는지 확인.
	*바람 방향	*바람의 방향이 잘못된 부분 잡아주기.	*바람의 방향 위.아래로 붙어보기.
종결 (5분)	*주의사항 정리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짚어주면서 다 같이 소리 내어 보도록 지도.	*선생님의 지도를 생각하며 소리 내어 본다.

위의 <표 3>은 전 2차시까지는 율명을 알고 각 율명에 맞게 지공을 막아 보았고 3차시에서는 단소 소리를 내어 연습하여 보며 전시에 말 했던 내용과 다른 점을 비교하여 잘못된 부분을 고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한다. 또한 개인지도를 통하여 지도하여 보도록 제시하였다.

<표 4> 4차시 수업지도안

과 목		음 악		
수업 대상		중학생		
단 원		단 소 (아랫단, 높은 단 소리내기)		
차 시		4 / 6		
본시 차시	학습 목표	1. 바람의 세기에 따른 음정의 차이를 알 수 있다. 2. 아랫단을 소리 낼 수 있다. 3. 높은 단을 소리 낼 수 있다.		
지도 내용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비고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7분)	*전시 확인	*각 율명을 말해 지공을 잡도록 지도 *‘汰(태)’ 소리 내어 보기	*각 율명에 맞게 지공 을 잡아 보도록 한다. *‘汰(태)’ 소리 내어 보기	교과서
전개 (33분)	*단소 음정 소개	*단소의 2옥타브 설명 후 시범 연주	*단소 옥타브 설명 경청	단 소 멀 티 미디어
	*아랫단 소리내기	*아랫단 연습하는 법 汰(태)-潢(황)-無(무)- 林(임)-仲(중) *아랫단 바람의 세기 조절 설명 *한음 한음 소리내어보기 *높은 단 연습하는 법 洵(중)-淋(임)-灑(무)- 潢(황)-汰(태)	*아랫단 ‘태’에서부터 소리 내어 보기 *바람세기 조절하며 아랫단 연습 *높은 단 ‘중’에서부터 소리 내어 보기	

	<p>*높은 단</p> <p>*‘태’ 지공 잡는 법</p>	<p>*높은 단 바람의 세기 조절 설명</p> <p>*한음 한음 소리 내어 보기</p> <p>*낮은‘汰’ 높은‘湫’ 지공 잡는 법 설명</p>	<p>*바람세기 조절하며 높은 단 연습</p> <p>*한음 한음 정확히 소리내어 보기.</p> <p>*‘태’ 단소 지공 낮은‘汰’ 높은‘湫’ 잡아보고 기억하기</p>	
<p>종결 (5분)</p>	<p>*아랫단 높은 단 소리내기</p>	<p>*아랫단 천천히 정확히 소리 내어 보기</p> <p>*높은 단 천천히 정확히 소리 내어 보기</p>	<p>*아랫단, 높은 단 바람이 세기 조절하며 소리연습.</p>	

위의 <표 4>에서는 아랫단과 높은 단을 알고 비교하며 소리 내어 연주할 수 있게 한다. 아랫단과 높은 단의 울명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방법으로 옥타브 소리를 내게 하는지를 공부해 보는 시간으로 바람의 세기와 아랫단 ‘汰’와 높은단 ‘湫’ 지공을 막는 방법이 다르다는걸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표 5> 5차시 수업지도안

과 목		음 악		
수업 대상		중학생		
단 원		단 소 (정간보)		
차 시		5 / 6		
본시 차시	학습 목표	1. 정간보가 생겨난 배경을 알 수 있다. 2. 정간보 악보 읽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3. 정간보를 보며 ‘몽금포 타령’을 연주할 수 있다.		
지도 내용	학습 내용	교수 - 학습활동		비고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7분)	*전시 확인	*‘몽금포 타령’을 굿거리장단에 맞춰 노래 부르기.	*굿거리 장단에 맞춰 ‘몽금포 타령’ 노래 불러본다.	교과서 단 소
	*낮은 단 소리 내기	*아랫단 소리 내어 보기	*바람조절을 하며 낮은 단과 높은 단을 소리 내어 본다.	
	*높은 단 소리 내기	*높은 단 소리 내어 보기 *아랫단부터 높은 단까지 이어서 소리 내기 지도.	*낮은 단부터 바람의 세기를 점점 세게 불어 높은 단으로 올라가 소리 내어 본다.	
전개 (33분)	*정간보 설명	*정간보의 탄생 배경 설명	*정간보의 탄생 배경 에 대해 경청.	멀 티 미디어
	*기호 설명	*정간보에 쓰이는 각 기호 설명	*정간보 보는 방법 이해 *각 기호에 대해 이해	

	<p>*한배 설명</p> <p>*시범 연주</p> <p>*율명 읽기</p> <p>*지공 잡기</p> <p>*단소 연주</p>	<p>*각 정간의 한배에 대해 설명</p> <p>*‘몽금포 타령’ 단소 시범 연주</p> <p>*‘몽금포 타령’ 율명 으로 읽어보기</p> <p>*율명 으로 읽으며 지공 잡아보기</p> <p>*단소로 천천히 연주</p>	<p>*각 정간의 한배에 대해 이해</p> <p>*‘몽금포 타령’ 연주 듣기</p> <p>*‘몽금포 타령’ 율명 으로 노래 불러보기.</p> <p>*율명 으로 노래 부르며 손가락 지공 잡기.</p> <p>*단소로 천천히 연주</p>	
<p>종결 (5분)</p>	<p>*‘몽금포 타령’ 연주</p>	<p>*‘몽금포 타령’ 단소로 천천히 합주.</p>	<p>*‘몽금포 타령’ 단소로 장단에 맞춰 연주.</p>	

위의 <표 5>에서는 우리의 전통 국악악보 ‘정간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간보를 보는 방법과 정간보에 쓰이는 각 기호를 이해하며 ‘몽금포 타령’을 단소로 연주해 보는 시간이다. ‘몽금포 타령’을 노래를 먼저 불러보고 율명으로 읽어보며 지공을 띄어보고 단소로 천천히 연주해 보는 순서로 연습하여 보도록 지도한다.

<표 6> 6차시 수업지도안

과 목		음 악		
수업 대상		중학생		
단 원		단 소 (장식음 및 부호)		
차 시		6 / 6		
본시 차시	학습 목표	1. 장식음과 부호를 이해할 수 있다. 2. 정간보에 쓰여 있는 장식음과 부호를 연주할 수 있다. 3. 타령을 장식음과 부호를 넣어 화려하게 연주할 수 있다.		
지도 내용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비고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7분)	*전시 확인	*‘몽금포 타령’을 굿거리장단에 맞춰 노래 부르기. *울명 으로 노래 부르며 단소 지공 짚어보기 *단소로 연주해 보기.	*굿거리 장단에 맞춰 ‘몽금포 타령’ 노래 불러본다. *울명으로 노래 부르 며 단소 지공을 잡아 본다. *단소로 연주하여 본다.	교과서 단 소
전개 (33분)	*장식음 *부호 설명	*각 장식음과 부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는 본음. 한음위. 본음 을 재빨리 연주해 준다. *∧ 는 한음 위 음을 재빨리 연주 해 준다.	*각 장식음과 부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가락의 변화를 살펴 본다. *∨ 의 가락이 붙은 부분의 가락을 연주해 본다. *∧ 의 가락이 붙은 부분의 가락을 연주	멀 티 미디어

	*시범 연주 *율명 읽기 *한 장단씩 연주	*‘타령’ 시범 연주 *‘타령’을 율명 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지공을 띄어 본다. *‘타령’을 한 장단씩 천천히 연주 해 보자.	*‘타령’ 시범 연주 감상 *‘타령’ 율명 으로 읽으면서 지공 띄어본다. *‘타령’ 한 장단씩 천천히 연주해 보기.
종결 (5분)	*‘타령’ 연주	*‘타령’을 장단에 맞춰 연주하여 본다.	*‘타령’을 단소로 연주.

위의 <표 6>에서는 마지막 차시로 정간보에 쓰이는 부호와 장식음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의 전통 국악곡 영산회상 中 ‘타령’ 1장을 연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제 4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자가 교육현장에서 지금까지 실천해오던 단소 교육법을 종합한 ‘중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단소 지도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6차시 수업지도안으로 이루어진 단소지도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직 음악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단소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단소교육을 통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단소 교육의 체계적인 수업지도 방안 연구를 통해 현 교사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단소 교육의 한 부분을 6차시 수업지도안 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1차시에서는 단소의 가장 기본을 다루었다. 단소의 유래와 단소의 율명(律名). 그리고 각 율명(律名)에 해당하는 지공 잡는 법에 대해 논하여 단소의 기본에 관한 것이었다.

2차시에서는 단소 소리 내는 방법을 다루었다. 소리 내는 방법을 3가지로 단축하여 방안을 제시 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3차시에는 1.2차시에서 잘 따라오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개인지도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정확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다루어졌다.

4차시에서는 단소의 2옥타브를 아랫단(低吹)과 높은 단(高吹)로 나누어 바람의 세기의 차이를 알도록 하여 연습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5차시에는 단소 소리내기 연습을 끝내고 정간보(井間譜) 보는 방법을 익혀서 곡을 연주해 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6차시에서는 정간보(井間譜) 에 표기되는 장식음과 부호를 익혀 곡을 더욱 맛깔스럽게 연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제시 하였다. 이렇게 6차시에 걸친 수업지도안을 제시해 보았는데 1주일에 2회 음악수업을 한다는 가정 하에 한 달 안에 단소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소를 1년 동안 나누어서 단소 단원이 될 때마다 한번씩. 혹은 1달에 1번 단소지도를 한다면 그건 별 효과가 없다. 단소 지도는 꾸준히 지도를 해야지 띄엄띄엄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학생들도 한 달에 한 번 단소를 수업시간에만 볼어보고 연습하는 것 보다는 1주일에 2회씩 꾸준히 한 악기만을 연습해 나가는 것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6

차시 수업 지도안을 제시 하였지만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교사들의 기량 일 것이다. 교사들은 교사 양성기관인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단소 지도 방법을 교육 받았었고 연수 때 마다 단소교육은 받고 있지만 교사들의 단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단소교육이 어렵다는 생각에 단소 교육을 잘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1차시부터 6차시 수업지도안 매 차시마다 들어가는 건 바로 교사의 ‘시범 연주’이다. 교사들이 단소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여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학생들이 ‘그때 음악 선생님 덕분에 내가 우리의 국악기 중 하나인 단소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모두 노력해야겠다. 또한 전통음악인 국악에 대한 의식이 새로워지고 음악적 경험이 자신들의 음악적 소양을 발전시켜 자신의 소질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겠다.

또 이러한 계기로 국악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참고 문헌

- 교육부, 초.중등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김두봉.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제재곡 분석 연구. 서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경옥. 교과서와 함께하는 단소교본. 서울:효일 문화사, 2008.
- 백병동 외 4인. 중1학년 음악교과서. 서울:천재교육, 2007.
- 서한범, 주대창 외 2인. 중2학년 음악교과서. 서울:도서출판 태성, 2002.
- 이병철, 중학교 음악교육에서의 효율적 단소지도 방안. 강릉대학교 강릉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순례, 유아를 위한 국악교육 연구, 동남대학교 논문집 제 35호, 서울: 동남대학교, 2001.
- 안수영. 초보자용 단소교본. 서울:현대음악 출판사, 1992.
- 윤경미. 문진. 중3학년 음악교과서. 서울:아침나라, 2007.
- 조성래. 기초편 단소교본. 서울:도서출판 한소리 국악원, 2008.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음악 교육	학 번	20078096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정은숙 한문 : 鄭恩淑 영문 : Jeoung eun-sook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삼익1차 104동 904호				
연락처	E-MAIL : daegumgirl @ 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중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단소지도 방안 연구 영어 : Research on Effective Dan-So Educ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10 년 1 월 7 일

저작자: 정 은 숙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